

2008년 7월 23일 말씀

앞으로는 방송을 할 것입니다. 그러니까 준비를 많이 해 봐야 합니다. 무한한 자료를 많이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. 나를 보십시오. 20년 동안 준비해 가지고 와서 맨날 이걸 언제 써먹나 했는데 모자랐습니다. 모자라면 들어가서 또 준비하고 했습니다. 2만 번 설교하니 끝났습니다. 원래는 설교 3만개 준비해서 나왔는데 만개는 잊어버렸습니다. 그래서 30년 동안 2만 번 하니 끝났습니다. 그러니 나머지 할 것이 없으니 지금 또 준비하는 것입니다. 무한한 준비를 해 봐야 합니다. 한 것을 또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? 계속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. 그래서 앞으로 방송국을 열면서 세계 사람들이 보게 하려고 합니다. 그러니 조직도 만들고 준비도 하고 해야 합니다. 청중 모임 안 하려고 합니다. 한 번 모이면 엄청난 돈이 들어갑니다. 교통사고도 많이 납니다. 그래서 방송을 하면 제일 좋습니다.

사람들 잘 뽑아서 방송국으로 들여보내고 아나운서도 다시 뽑고 준비를 시키십시오. 계속 일을 시켜야 합니다. 방송국 열면 그때부터 보고 하면 늦습니다. 준비를 찬찬히 해 봐야 합니다. 국가 운동선수 보십시오. 피 눈물 나게 연습합니다. 그 사람들 운동 하는 것 보면 진짜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. 보통 하는 것이 아닙니다. 목숨을 걸어놓고 합니다. 자기의 명예 보다는 국가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. 그렇게 하면서 미리미리 준비하면서 해야 합니다. 청중은 쳐다보는데 배운 것이 없고 들은 것이 없으면 내 놓을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.

그래서 나보고 배우라고 했습니다. 청중은 밀려오는데 내 놓을 것이 없습니다. 그러면 왜 하던 것을 하나고 사람들이 그럽니다. 청중이 한번 인식 잘못하고 사고로 뭉쳐서 한 번 흩어지면 모아지지 않습니다. 그래서 아주 새롭게 계속해서 한없이 만들어 나가야 됩니다. 하나하나 해나가야 됩니다. 다른 큰 소리 치던 큰 종교들은 다 없어졌습니다. 열심히 모두 뛰어 들어서 해야 됩니다. 그래도 하던 사람들이 해야 합니다. 그리고 일 잘한다고 다 맡기면 안 됩니다. 잘한다고 회사 다 맡기면 죽습니다. 절대 안 됩니다. 100개 할 수 있으면 60개만 맡기고 40개는 본인 자유 시간을 줘야 합니다. 그렇게 안 하면 안 됩니다. 나중에 지쳐버리면 도망쳐버립니다. 그러니 행정도 봐주고 전문적인 것도 해주면서 잘 해나가야 합니다. 내가 신경을 많이 쓰고 있으니 잘 들 하십시오.

봄이 오면 눈이 녹는데 괜히 불로 눈을 녹이려고 하면 자기만 죽어날 뿐 아니라 산에 있는 나무도 다 없어지게 됩니다. 그러니까 눈이 녹을 때까지 때를 기다리면 됩니다. 그 때까지 자기가 하던 일을 열심히 하면 됩니다. 그러면 그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. 그것이 해결 안 된다고 그것 한 가지만 쳐다보고 사는 인생들이 아니지 않습니까? 바쁜 인생들입니다. 다른 것 하고 있으면 어느 정도 때가 되면 해결이 됩니다. 때가 되지 않으면 해결이 안 됩니다. 겨울철에 농사를 지을 수는 있지만 썩이 나지 않습니다. 결국 봄이 되어야 납니다. 그러니 그렇게 알고 열심히 하십시오.